

Open 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85 | 2026년 01-02월

불가능한 믿음

그리고 조 전도사



칼럼 - 진주 장사의 삶

불가능한 믿음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만든 영향

- 인도 / 예멘

기도 요청

- 믿음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자세히 알아보기

- 북한 /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소말리아 기독교인들

Heart to Heart

- 2026 월드와치리스트(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발표회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수료식 / 하나님의 부르심 독후감

-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 화요 기도 모임 초대

박해와 선교현장 - 북한

희망의 선물 / 100 후원교회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6년 01-02월호 | 통권 285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조남준, 임훈희, 김다운
민태홍, 유진영, 신예은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송레아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셋별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이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 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차

- 03 칼럼 - 진주 장사의 삶
- 04 불가능한 믿음
- 08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만든 영향 - 인도 / 예멘
- 12 기도 요청
- 믿음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14 박해와 선교현장 - 북한
- 16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자세히 알아보기
- 북한 / 아프리카의 볼 지역에 있는 소말리아 기독교인들
- 22 Heart To Heart
- 2026 월도와차리리스트(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발표회
-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수료식 / 하나님의 부르심 독후감
-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 화요 기도 모임 초대
- 27 희망의 선물 / 100 후원교회

진주 장사의 삶

김성태 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진주 장사가 평생에 구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자 자신의 소유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구매하게 되는 비유가 예수님에 의해 마태복음 13장 45~46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경건한 청교도 지도자의 글 속에서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전도와 선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청교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토마스 왓슨의 마태복음 강해와 존 번연의 천로역정). 전 세계의 박해받는 교회와 신자들은 진주 장사처럼 가장 고귀한 천국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며 증인이 되기 위해 때론 자기 육신의 생명도 가족도 희생하며 무명의 천국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 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노고를 위로하시며 각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북한의 그루터기 교회 지도자가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인간으로 한순간도 신앙인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련과 도전이 첩첩이 몰려와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시고, 신자의 기도 에 응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에 신자 신앙의 경주 길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국제본부와 함께 전 세계의 핍박받는 교회와 교인들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도 고난을 통해 탄생했으며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계 교회가 부러워하는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25년도에 인천 송도와 서울에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연합 기구인 로잔 복음화 대회와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가 한국에서 열렸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인정하며 복음주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력을 요청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불필요한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과도한 신학 논쟁과 개 교단주의와 개 교회

주의가 한국교회의 건설적인 연합과 협력의 상당한 원동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두 모임에서 세계의 고난받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관심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받는 교회를 대변하여 모든 자료와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양 대회가 끝난 이후에 한국교회가 얼마만큼 고난받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는 25년 동안 기독교인을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는 나라 순위로서 북한 공산정권을 1위로 뽑았습니다. 이 통계는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기관에 위임하여 객관적인 통계로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신자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순서를 정해 기도하는 기도팀과 북한선교 현장을 오고 가면서 북한 교인들을 돕는 전문 선교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를 돕기보다 더욱 고난받는 교인에게 영적 도움을 받습니다.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고난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의 향기를 맡으며 천국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신년도에 전 세계의 고난받는 교회 소식을 전하는 오픈도어 선교 소식지가 매월 발행에서 격월로 바뀝니다. 한국교회에 고난받는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데 많은 경비가 지출되고, 이것을 온라인 자료 배부로 부담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외형은 커졌지만, 그것이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을 돕는 일에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요? 한국교회가 북한교회와 고난받는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될 때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희생하고, 영적 원동력을 얻으며 비로소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로 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민

조 전도사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여러분의 후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북한에서는 너무나 위험해서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원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욱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은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덩불 속에 몸을 숨긴 채, 다가오는 남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은영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은영과 그녀의 동반자 철호*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둘은 막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참이었고, 이 낯선 사람은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탈북자로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혹독한 처벌—고문은 물론, 심지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숲 바닥에 음식과 물이 담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담요와 은신처도 함께 두고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밤, 친절할 낯선 사람이 가져다 준 맛있는 흰쌀밥을 먹으며 은영은 도저히 궁핍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오픈도어의 사역자인 조 전도사*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매우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분에 대한 책도 가져왔습니다…”

세뇌된 사람들

수년 동안 조 전도사는 이 젊은 부부처럼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도와 왔습니다. 매일 그는 산속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 전도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 전도사가 만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처럼, 은영과 철호 역시 종교를 미워하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기독교는 위험하고 사악한 것이라고, 외국 선교사는 아이들을 속이고 그들의 장기를 빼간다고 정권은 끊임없이 교육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성경 한 권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은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조 전도사의 변함없는 보살핌은 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북한 국경 근처, 임시로 만든 텐트 안에서 은영과 철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 전도사가 평소처럼 음식을 들고 방문했을 때, 은영은 뛰어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꿈을 꿴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인 것 같았어요. 더 알고 싶어요. 저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조 전도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부부의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전가옥

조 전도사는 은영과 철호를 오픈도어의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북한 난민들은 음식과 돌봄을 제공받고,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은영과 철호는 성경 공부에 온 마음을 다해 임했습니다.

두 명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놀라운 결심을 밝히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북한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새로 찾은 믿음을 전하라고요.” 은영이 말했습니다. 이는 극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북한은 20년 넘게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목록에서 항상 1위 또는 1위에 가까운 탄압 국가였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금지되며,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밀 신자가 발각되면 고문, 심문, 또는 노동교화소에서의 평생 수감 생활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약 4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활동하며 신뢰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로 모여 예배합니다.

이제 은영과 철호도 그 비밀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조 전도사가 은영과 철호를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북한 내부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에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 전도사 같은 사람들이 국경 지대에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밀 안전가옥 네트워크는 수천 명에게 구호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픈도어 사역자를 통해 중요한 성경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훗날 안전가옥을 다시 방문할 수도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그들의 생애 마지막 복음을 들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여러분의 후원 없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마태복음 19:26 -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는 세계에서 가장 심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은영, 철호, 그리고 조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북한 신자들이 처한 극심한 위험 때문에 모든 이름과 신원을 보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 전도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실제 이야기입니다.

* 오픈도어의 사역자였던 조 전도사는 최근 소천했지만, 그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의 유산은 살아 있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4만 원 으로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성경과 제자훈련 자료를 제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7만 원 으로 극심한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난민에게 안전한 주거와 구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으로 박해를 피해 온 신자들을 돌볼 지도자 한 명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시 후원 (계좌로 입금)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정기 후원

은행이체: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 CMS 북한

신용카드: 홈페이지(opendoors.or.kr) - 후원하기



[홈페이지에서 후원하기]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놀라운 인내를 감사합니다.
- 주께서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자라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구합니다.
- 국경과 안전가옥에서 신자들과 난민을 돕는 조 전도사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용기로 채워주세요.
- 두려움과 굶주림, 고립 속에서도 북한 신자들이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깊이 느끼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 월드 와치 리스트(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2026년 1월 15일에 공개됩니다. 무료로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50 자료집을 신청하시고, 믿음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불가능한 믿음

-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카베리(Kaveri)와 그녀의 아이들은 인도에서 극단주의자들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닌 세 번이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물과 기도가 카베리에게 힘이 되었으며, 그녀는 여러분께 전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카베리*가 힌두트바 극단주의자들에게 처음 표적이 되었을 때,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목이 말랐어요." 20명의 여성을 위한 기도 모임을 운영하다 붙잡힌 이 싱글맘은 당시를 회상합니다. 카베리는 사람들을 개종시켰다는 허위 고발을 당했고 경찰의 심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경찰서에 잡혀 있었는데, '다시는 집에 못 돌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두 번째로, 극단주의자들은 카베리가 그녀의 작은 의류 사업을 통해 기독교 서적을 유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대가 너무 거세서,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인도 남서부에 있는 마을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오늘날의 제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세 번째로, 박해자들은 카베리의 막내아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아들이 동료 대학생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경찰에 구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베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녀의 남편은 카베리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수입도 없고, 집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으며,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카베리에게 나타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의 선물과 기도 덕분에, 오픈도어 사역자들이 카베리를 방문하여 그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녀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박해 대비 훈련에 참석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카베리가 새로운 의류 가게를 열도록 도왔고, 여성들을 위한 재봉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봉틀까지 제공했습니다.

이제 카베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을 사러 오는 사람들과 재봉을 배우는 여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카베리가 말합니다. "또한 옷을 팔기 위해 인근 마을로 이동할 때도 복음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며,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야 합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기도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카베리와 그녀의 아이들은 교회 활동과 가족 사업으로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에서도 믿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용감하고 신실한 여성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지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를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베리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제가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보호를 위해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 카베리(Kaveri)의 불가능해 보이는 믿음에 감사하며, 그녀가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께서 카베리의 마을에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현지 신자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 인도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위협으로 보며, 박해가 극심한 곳입니다.

제자훈련이 가능해지다

예멘에서 믿음은 존재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해질 뿐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들까지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 덕분에
칼레드는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은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레드(Khaled)*는 대학 이사장의 사무실에 앉아, 한 동료 학생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방을 가로질러 다가와 칼레드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치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칼레드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는 채찍을 집어 들고 가족이 말릴 때까지 칼레드를 마구 때렸습니다.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 같았어요.” 칼레드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몇 시간 후, 이 젊은 남성은 집에서 쫓겨나 거리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칼레드는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가 인터넷을 접하게 되어서야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멘인 기독교 유튜브의 영상을 따라 보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의 사역자들과 연결되면서 비밀리에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칼레드는 온라인 예배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조차 없었던 칼레드는 이 기독교 형제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반 선생님들은 그 어려운 시절 제 버팀목이었어요.” 칼레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그들은 늘 저를 격려해줬어요. 등과 팔, 옆구리, 얼굴 곳곳에 멍이 들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예멘에서 예멘 신자들을 세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칼레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후원이 예멘 교회의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젊은이를 돕고 있습니다.

칼레드는 다른 나라에 있는 목회자의 코칭을 받고 있으며 재정 지원도 함께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팀은 칼레

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장차 교회를 돕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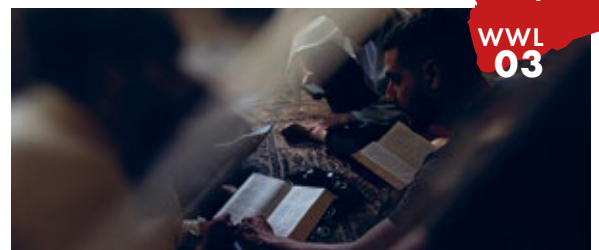
한때 칼레드가 예멘에 남아 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멘은 수년 동안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WWL) 상위 5위 안에 드는 핍박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칼레드는 지금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제자훈련반 선생님들은 정말 제 버팀목이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실패자, 미래도 없는 불신자라고 여깁니다.” 칼레드는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지역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곳 예멘 신자들을 직접 세례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면, 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시고 저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 안전을 위해 이름과 사진은 변경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 칼레드의 용기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멘에 남겠다는 헌신에 감사합니다.
- 하나님께서 칼레드의 계획을 축복하시고 예멘 교회에서 강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이들 중 하나인 예멘의 비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이 가능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번성하는 소말리아 교회?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말리아에서 아웨이스(Aweis)의 지하교회가 14명으로 성장했을 때, 그것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 예수님을 따르며, 비밀리에 라디오 방송을 들었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아웨이스는 말합니다. “함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마치 세상이 활짝 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2년 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 교회 14명 중 12명이 믿음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아웨이스는 깊은 슬픔 속에 말합니다. “우리가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도 누군가 다가와 당신을 참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폭력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소말리아는 1993년부터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 10위 안에 꾸준히 들어온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 망명 중인 아웨이스는 그 중심에서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 마태복음 19:26 -

“수많은 살해 위협 때문에 소말리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아웨이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말리아 교회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웨이스는 현재 소말리아어 성경 번역, 제자훈련 자료 개발, 지도자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역을 숨기지 않

고 담대하게 드러냅니다. 전 세계의 핍박받는 신자들처럼 아웨이스도 여러분의 기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웨이스는 요청합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번성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도록. 그래서 무슬림 박해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도 저들 같아지고 싶다’ 라고 느끼도록. 그들이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그는 확신에 차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웨이스와 함께 소말리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어떤 박해와 거절, 위협도 가장 위험한 땅에서조차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막지 못하게 해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길잡이이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교회가 번성하게 하소서.
아멘.



믿음이 존재하기조차 어려운 곳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북한을 비롯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 10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규모 비밀 공동체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 적대적인 환경 속에 있는 신자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해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주세요.
-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 국가에 사는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에게 소망과 인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박해지수 World Watch List 2025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기독교 박해지수

1 위

북한(NORTH KORE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북한에서는 종교나 신념의 자유가 없다. 정권은 모든 시민을 철저히 감시한다. 기독교인이 발견되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정치범으로 노동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즉시 처형된다.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모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극도의 비밀 속에서만 시도해야 한다.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 CSW, 2024년 9월)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헌법"은 성경을 제28조에 언급된 금서 목록에 포함시켜, 기독교를 국가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양에서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들은 단지 선전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북한 (NORTH KOREA)

국가 정보

지도자 : 최고 지도자 김정은

인구 : 26,245,000명

기독교인 수 : 400,000명(오픈도어 추정치)

주요종교 : 불가지론

정부형태 : 정부 독재, 단일 정당 공산주의 국가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400,000	1.5
불가지론자	14,786,370	56.3
무신론자	4,022,399	15.3
그 외	3,345,572	12.7

출처¹

1900년대 초, 평양 대부흥이 시작되었고, 북한의 수도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선교사들은 전국에 교육 기관을 설립했다. 일본 통치하에서 교회는 점점 더 박해를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후,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공산주의(무신론) 정권을 세웠다. 한국 전쟁(1950-53)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망쳤고, 그 후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외딴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나머지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다.

김일성주의(통치 가문 숭배)는 국가가 정한 종교이다. 모든 시민은 매주 자기 비판 세션에 참석하고 100페이지 이상의 이념 자료를 암기해야 한다. 유교의 영향

을 받아 북한은 모든 시민을 세 계층으로 나누는 성분이라는 사회적 분류 시스템을 개발했다. 핵심 계층(사회 28%), 동요 계층(45%), 적대 계층(27%)으로 나뉜다. 기독교인과 그 후손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다. 기독교는 싸워야 할 위험한 외래 종교로 여겨진다. 오픈 도어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노동 수용소에 있다고 추정한다. 2020년 유엔 보고서는 이러한 수용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 나체, 강간 및 강제 낙태를 포함한 인권 침해에 대해 강조했다. 기독교 남성들도 노동 수용소에서 신체적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다.

신뢰할 수 있는 종교 통계 데이터는 없다. 오픈 도어는 기독교인의 수를 40만 명으로 추정한다. 불교와 유교의 추종자들도 있으며, 이들의 철학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쉽게 따를 수 있다.


2011년부터 집권한 김정은은 의회, 정부, 군대를 통제하고 있다. 그는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로켓 및 핵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체 내용 확인하기

전체 내용은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opendoor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Leiden/Boston: Brill, 2024년 3월 접속)



북한 자세히 알아보기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자세히 알아보기

Q. 평범한 북한 주민의 일상은 어떤가요? (도시와 농촌 비교)

북한에서의 일상은 도시든 농촌이든 **정부의 통제, 정치적 세뇌, 끊임없는 감시** 아래 놓여 있습니다.

도시 생활 (예: 평양)

평양 주민들은 대체로 충성도가 높은 가정 출신이지만, 이들도 극도로 제한된 자유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는 국가 선전 방송으로 시작되고, 의무적인 정치 학습, 자아비판 모임, 감시가 동반된 직장 생활로 이어집니다.

평양이라 해도 **식량 부족과 불안정한 전력**이 흔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가고, 어떤 책이나 영상을 보는지까지 모두 통제됩니다. 잘못된 발언 하나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생활

농촌 주민들은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기본적인 도구로 국영 농장에서 긴 시간 노동하지만, 그 대가로 받는 식량은 매우 적습니다. 전기는 거의 없으므로 서비스도 부족합니다. 영양실조는 만연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만 종종 농사일에 동원됩니다.

많은 가정이 생계를 위해 장마당(비공식 시장)에 의존합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북한 주민들은 **결핍·감시·두려움** 속에 살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작은 방법으로 삶을 버텨 나가려는 노력이 계속됩니다.

Q. 북한 주민들은 왜 탈북을 결심하나요? 지도자에 대한 환멸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지 배고파서인가요?

북한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고,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었습니다. 당시엔 지금보다 탈북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경 통제가 매우 강화**되어 탈북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브로커 비용과 뇌물로 큰돈을 지불해야 하고 친척 방문·노동 비자 등을 통해 중국에 들

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자를 초과 체류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구적 탈북이 아니라, 생계 문제 때문에 잠시 다녀올 목적**으로 국경을 넘습니다. 정치적 이유보다는 **배고픔·빈곤·생존 위기**가 탈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Q. 북한 주민들은 기독교인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주민들의 인식은 **체제 선전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에 크게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인식

어린 시절부터 교육·매체를 통해 기독교는 외세의 종교, 위험하고 악한 것, 북한을 위협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가 아이들을 독살한다, 장기를 빼앗는다와 같은 허구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주입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은 기독교인을 국가의 적으로 봅니다. 믿지 않더라도, 생존을 위해 의심하거나 무관심한 척합니다. 기독교인을 신고하면 식량이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배신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전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경 지역에서는 외부 미디어 유입으로 선전에 회의론을 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꿈, 개인적 체험, 설명할 수 없는 계기로 복음을 접하고 믿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들의 간증은 복음이 아무리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완전히 막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Q.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으면 어떤 위험을 겪나요?

오늘날 탈북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웃 국가들은 대부분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체포 위험, 강제송환 위험, 착취와 인신매매, 주거·생계 불안이 뒤따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은 더욱 취약합니다.

Q. 강제송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극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탈북은 중대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가혹한 조사, 고문, 교화소·노동교화소 수감, 강제노동, 경우에 따라 공개처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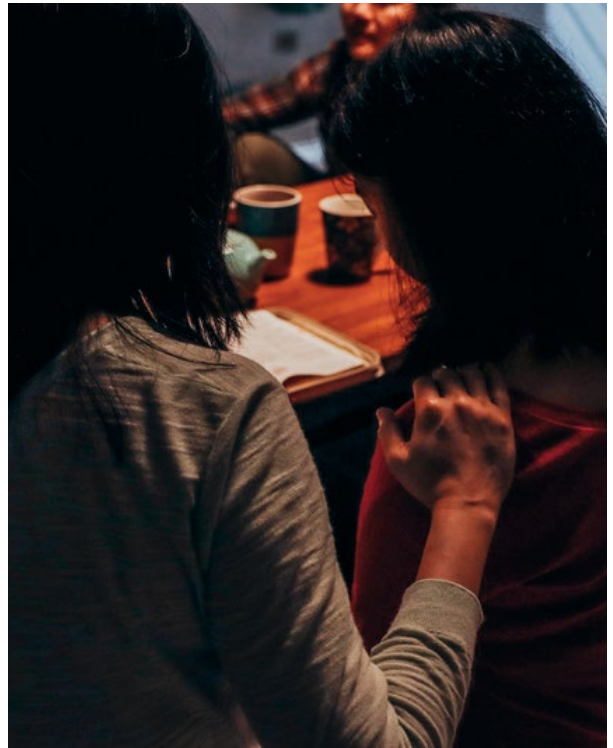
여성의 경우, 특히 외국인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다면 **강제 낙태**가 시행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의심되거나, 외부에서 교회 혹은 믿는 사람과 접촉한 것이 드러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런 경우 재판도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사실상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Q. 오픈도어선교회는 국경을 넘은 성도들을 어떻게 돕나요?

오픈도어는 북한 성도들의 **신체적·영적 필요**를 모두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주요 사역: 국경 지역 안전가옥(세이프하우스) 운영, 음식, 약, 의복 등 필수 생필품 제공, 목회 상담, 트라우마 치유, 성경 훈련, 여성 대상 성경 공부, 장기적 돌봄 또는 돌아가기 전 준비 교육

일부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 가족을 섬기고 조용히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사역은 **평생 단 한 번 들을 수 있는 복음의 기회**입니다.



Q. 북한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주세요:

- 영적·육적 강인함
-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용기
-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시는 평안
- 복음을 안전하게 전할 기회
-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적으로 북한 전역에 퍼지도록

또한 국경 너머에서 이들을 돕는 사역자들을 위해:

- 지혜와 분별력
-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
- 사역을 지속할 힘

북한 성도들이 **잊히지 않았으며**,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깊이 느끼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자세히 알아보기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소말리아 기독교인들



Q. 평범한 소말리아 시민의 삶은 어떠한가요?

개별 소말리아인의 삶을 이해하려면, 이들의 사회·경제 구조와 행정 체계, 그리고 문화적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은 현재 국가의 경계를 넘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 공화국의 국기에는 다섯 개의 꼭짓점을 가진 별이 있는데, 이는 소말리아인이 사는 다섯 지역—지부티, 소말릴란드, 소말리아 본토, 에티오피아 일부, 케냐 북부—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체 지역을 ‘소말릴란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부는 지부티와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이 포함된 ‘프랑스령 소말릴란드’, 동쪽은 현재의 소말릴란드(구 영국령), 서쪽은 에티오피아 동부의 오가덴 지역, 남쪽의 두 다리는 케냐 북부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말리아(구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회·문화적 구조입니다. 소말리아는 매우 강한 씨족 중심 사회입니다. 씨족 시스템은 장점도 있지만 큰 약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어려움이 닥치면 씨족이 개인을 보호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씨족에서 배척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구조입니다. 전 국민의 약 56%가 농업이나 유목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지역에 삽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과도한 일반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공화국의 시민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씨족 기반의 내전과 빈곤, 그리고 이로 인해 성장한 테러 조직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모가디슈 지역의 삶은 극심한 불안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지역은 비교적 안전하며, 지부티 역시 소말리아인이 주류를 이루는 정부 구조 덕분에 위험이 적습니다. 소말릴란드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소말리아 공화국 전체는 언제든 폭탄 테러, 납치 등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취약한 국가입니다. 법적 보호도 매우 약합니다.





Q. 소말리아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지 나요? (서구 기독교인 및 현지 기독교인 포함)

서구 기독교인은 종종 오해받습니다. 소말리아는 씨족 중심의 공동체이며, 종교와 문화적 결속이 매우 강합니다.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서구인은 기독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말리아 문화와 전통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말리아 사회는 전통적으로 환대, 너그러움, 어른 존중 등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지만, 서구인을 “우리의 삶과 종교를 변화시키려는 자들” 로 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서구 기독교인은 종종 적대적 시선을 받습니다. 폭탄 테러도 서구인이 주로 모이는 장소—해변, 특정 식당, UN 사무소 등—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말리아, 지부티, 소말릴란드 는 모두 **헌법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규정**합니다. 소말리아의 헌법은 **다른 종교의 전도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법이 샤리아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소말리아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막대한 위험을 동반합니다. 소말리아 사회에서는 “소말리아인이 되는 것은 곧 무슬림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개종은 단순한 ‘종교 선택’ 이 아니라 **씨족·가족·국가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Q. 소말리아인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며, 그 후 삶은 어떻게 변하나요?

소말리아에서 개종은 극도로 위험하지만, 매일 새로운 신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접하는 주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사역

가장 큰 통로입니다. 소말리아인들은 SNS(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등) 사용량이 매우 많고, 언어 장벽도 쉽게 해결합니다. 예: 영어 콘텐츠를 음성 → 텍스트 → 소말리아어 번역으로 이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다만 온라인 사역에는 ‘위장 관심자(스파이)’가 많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2) TV 및 라디오

라디오는 감소 추세지만 TV 사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디아스포라(해외 소말리아인)

해외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지하 교회

극비리에 소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 초자연적 체험

많은 소말리아 신자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Q. 소말리아에서 예수를 따르는 데 드는 대가는 무엇인가요?

개종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씨족·가족·사회·국가 모든 구조가 개종자를 되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가의 시작은 '가족'으로부터입니다.

- 여성은 강제로 결혼을 당할 수 있음
- 가족이 직접 폭력을 행사
- 극단주의 지도자가 "개종자를 찾아 처벌하라"는 공개 지시를 내리기도 함

개종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선택입니다.

Q.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말리아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소말리아 전역에 공개 교회는 존재하지 않음, 모든 모임은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짐, 온라인 교회가 큰 역할을 함, 체계적 제자훈련이 핵심

Q. 소말리아 교회의 필요는 무엇인가요?

맥락화된 제자훈련 자료

- 트라우마 치유와 정서적 돌봄
- 안전한 교제 공간
- 창의적 방식의 성경 접근
- 리더십 훈련
- 경제적 자립 지원
- 국제적 옹호 활동
- 긴급·의료 지원

Q. 세계 교회는 어떻게 소말리아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요?

1. 지속적인 중보기도
2. 국제적 옹호 활동
3. 정부에 종교 자유 압박
4.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

Q. 소말리아 기독교인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 성숙한 리더와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 폭행·고문·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육체·정서·심리 치유를 위해
- 소말리아 전역과 아프리카의 뿔 지역을 위한 강력한 옹호 활동을 위해
- 기독교 가정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전인적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 사역자·파트너·자원봉사자들에게 인내와 정서적 회복을 주시도록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 수료식

올해 처음 시작된 오픈도어 기도학교 2025가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긴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픈도어의 핵심 가치와 사역 이해, 조별 기도 모임, 기도 인도 실습 시간, 독서 나눔으로 구성되었던 각 시간들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까다로운 수료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료하신 열 다섯 분에게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오픈도어 대사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참가자 후기 (지면 관계상 일부 글만 발췌)

오픈도어 기도학교가 저에게 유익했던 점은 기도학교를 듣기 전보다 선교지, 특히 박해받는 나라와 제 자신의 거리가 실제적인 기도를 통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박해받고 있는 열방 곳곳의 지체들을 위해서 제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 이형진 집사

세계의 다양한 사역자들의 생생한 현장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핵심코어와 강의, 기도회로 나누어져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 최석환 집사

기도실습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고, 기도 제목을 말할 때 다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훈련과 중보기도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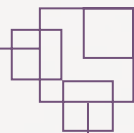
- 유춘자 선교사

은사와 분량에 따라서 협력하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협력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성숙과 그리스도로 조성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협력하는 한 무리 opendoor 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 김지호 형제

실제 현장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 피어난 소중한 영혼들의 탄생의 모습은 늘 들어도 또 들어도 기쁜 소식들이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송옥숙 권사



하나님의 부르심 독후감

이번에 세 권의 책을 읽으며 함께 할 때 위로가 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았다. 나의 기도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세계를 다니며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당신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나 또한 작은 발걸음이라도 믿음으로 내딛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귀한 책을 통해 도전과 은혜를 받게 되어 감사하다.

- 유춘자 선교사

책 내용 중 박스에 나와 있는 성경 전달 팀에 참여한 많은 젊은이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도전을 받았다. 나 이도 어린데 어떻게 조직적으로 기도 모임이나 자조 모임을 만들어 활성화하는지. 그리고 내 안의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말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도록 복음을 노출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중보로 대적기도로 나아가야겠다.

- 김유정 선교사

목숨도 아끼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앤드류형제님과 동역자들을 보며 너무 감동적이다.

그리고 50년간 그의 헌신을 받아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발차취를 보며 너무 부러웠다. 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로 올려본다.

또한 박해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특히 북한이나 서남아프리카의 박해(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단과의 영적전쟁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믿음의 빛의 전사들)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 빛의 전사들을 통해 아프리카 뿐 아니라 전세계에 하나님나라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영적전쟁에서의 나의 부르심(오픈도어기도학교훈련에 참여케하신 하나님께 감사)을 생각하며 순응하기로 결단한다.

앤드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믿음이 특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부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아서 일반 그리스도인과 다를 뿐이라고 하셨다.

출석교회에 전도대 활동이 있는데 어서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서 전도대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맘먹는다. 그리고 남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내 삶이 우리 가정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박연주 집사

- 황재순 집사

2026

WORLD WATCH LIST

2026 월드와치리스트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발표회

일시: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10시-12시

월드와치리스트란?

오픈도어에서 기독교 신앙을 공언하고 실천하기 가장 힘든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연간 보고입니다. 해당 목록은 폭력의 정도, 정부규제 정도,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회의 적대감에 근거한 것이며, 전 세계 기독교인이 겪는 박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범위한 연구,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의 자료, 국내망, 외부 전문가들 및 박해 분석가들을 통해 전 세계 박해를 수치화하고 분석한 이 목록은 매년 초에 발표됩니다.

방법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참여 방법

행사 시간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혜택

유튜브 실시간 채팅 중에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지도'와 관련 자료를 가장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폼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며 무료 발송입니다.



이메일 뉴스레터 신청 안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의 소식들을
이메일로 매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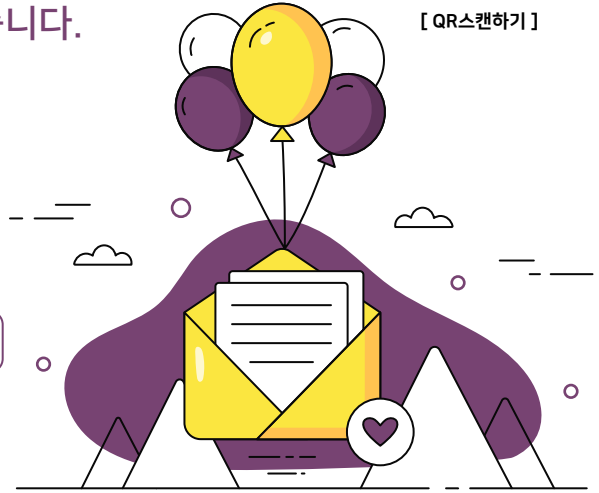
[QR스캔하기]

이메일 뉴스레터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QR코드
2. 문자 / 전화 신청 :

성함과 이메일 주소, 이메일 뉴스 신청 

이라고 적어서 010-7548-3171번으로
문자주시거나 전화하여 신청해 주세요.



JOIN US FOR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화요기도모임'에
초대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9시까지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화요 기도 모임'
을 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따뜻한 분위기로 맞아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를 통해 줌 접속하시거나
전화 02-596-3171로 문의하시면
접속 링크를 문자 등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WEEKLY

Open Doors

한국오픈도어 모바일 주간 소식지

“오픈도어위클리(Open Doors Weekly)” 통해

매주 전세계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채널을 추가하세요



나의 희망의 선물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 - 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7000원~)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 - SSTS세미나 등 (30,000원~)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30,000원~)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40,000원~)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50,000원~)



여성, 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 지원 (50,000원~)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50,000원~)
- 선물9. 박해피해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30,000원~)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60,000원~)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60,000원~)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20,000원~)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 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일시 후원 또는 정기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 일시 후원

- 후원 항목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가능)
-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 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전화, 휴대폰, 이메일, 카카오톡 채널 중 하나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2. 정기 후원(매월 자동이체)

아래 내용을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